

급식 및 수영장 물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병원체 보유자 중 3분의 1 이상은 최초 가검물채취 3주 이후에도 장출혈성 대장균 PCR 양성이었다. 지역사회 설사환자 감시결과 설사환자 유행은 없었다.

**결론:** 학교 급식 대상자인 3-6학년과 교직원에서 비대상자(1-2학년)에 비해 병원체보유자의 비율이 약14배 높은 점으로 미루어 학교급식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영장, 햄버거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 사례는 무증상 집단감염 사례로 기존에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 균배출 기간보다 더 긴 균배출을 보였다.

## MS2-5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10년간의 분석

#### Analysis of adverse reactions after vaccination recommended by KCDC for 10 years

김상덕<sup>1)</sup>, 박숙경<sup>1)</sup>, 임은실<sup>1)</sup>, 김영택<sup>1)</sup>

(1)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목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백신의 생물학적 특성 및 백신에 대한 개인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다. 1994년 일본뇌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된 이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EDI(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로 감시체계를 전산화하였고 2001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한 후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이후로 10년 동안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4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0년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연령별 이상반응 발생수, 접종별 이상반응 발생수, 중증 이상반응 사례 분석 등이다.

**결과:** 1994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신고된 사례는 총 270건이었고 이중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총 202건이었다. 연령의 중앙값은 8.3세(범위:0-80세)였고 이중 남자가 107명(53.0%)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1세미만의 영아가 47명(23.5%), 6세미만의 소아가 28명(13.9%), 6세에서 15세미만의 소아가 101(50%)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 소아가 대부분이었다. 백신별 이상반응 발생 사례는 MR이 122건(60.4%)로 가장 많았고 BCG가 33건(16.3%), DTaP가 16건(7.9%), 일본뇌염이 16건(7.9%) 순이었다. 이상반응의 종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7명(3.5%)에서 발생하였고, 신경계 이상반응 중 뇌염 혹은 뇌증이 7례(3.5%), 경련이 5례(2.5%), 길랑-바레 증후군이 2례(1.0%), 횡단척수염이 2례(1.0%),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례(0.5%), 백신관련 막비성 소아마비가 1례가 발생하였다. 기타 BCG 접종 후 발생한 림프절염이 33례(16.3%)였고 접종부위 봉와직염이 5례 발생하였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사망례는 41례였으나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7례였고 이중 4례가 1994년 5월에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후 뇌염으로 2명이 사망하였고 아나필

락시스로 2명이 사망하였다. 나머지 3례는 DTaP 접종 후 발생한 과민반응으로 2명 사망하였고 뇌염으로 1명이 사망하였다. 접종후 1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는 113례(55.9%)로 가장 많았고 1달 이후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BCG 접종후 발생한 림프절염이었다. 상기 사례 중 국가에 피해보상신청을 한 사례는 81건이었고 이중 52례(64.2%)가 보상이 되었다.

**결론:** 2001년 MR 단체접종 시 발생한 이상반응 사례가 121례(60.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1994년에 일본뇌염 접종후 사망 4례와 DTaP 접종후 발생한 사망 3례가 있었다. 국내의 추정 이상반응 발생 건수는 대략 1,900건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신고 건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 수도나 b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등은 아직 신고가 의무화 되지 않아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